

회 의 명		2024년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 간		2024. 12. 6.(금) 17:00~17:50	장 소	스퀘어원 더파티원
참 석 자		- 연수구가족센터 센터장 주영신		
		- 연수구가족센터 가족3팀장 박정윤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여성정책팀장 김윤정		
		- 미추홀법률사무소 부소장 이도희		
		- 하나키즈 어린이집 원장 이혜순		
		- 센터 이용자 대표(비다문화) 정세연		
		- 위임장 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김용길		
		- 위임장 중앙대학교 교수 이미정 (이상 8명)		
작 성 자		박정윤 가족사업 3팀장		
회 의 내 용		1.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연수구가족센터 운영위원 11명 중 총 6명 참석, 2명 위임장 제출로 성원이 되어 이도희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2. 운영위원 소개 - 박정윤 간사가 참석 운영위원을 소개하고, 이도희 위원장이 참석 위원에게 인사말씀을 전달하였다.		
		3. 4분기 주요 운영 현황 보고 - 박정윤 간사가 서면자료를 통해 센터 현황 및 4분기 팀별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다. 이에 이혜순 위원의 동의와 김윤정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 위원의견 ▷ 이도희 위원이 지역 사회에서 연수구가족센터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센터장님 외 종사자 분들의 표창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에서 우리 가족센터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해 동안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노력의 결과이며,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4. 2024년 4분기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2024년 4분기 예산 및 정산에 대하여 박정윤 간사가 서면 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이에 김윤정 위원의 동의와 이혜순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 위원의견 ▷ 이도희 위원이 정산 및 실적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반납금 중 아이돌보미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문화가족 자녀학습비 지원의 사업비 반납 및 언어발달지도사가 선발되지 않아 이로인한 인		

건비가 반납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하다.

5. 2025년 신규 사업보고

-2025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박정윤 간사가 서면 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이에 정세연 위원의 동의와 김윤정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6. 2024년 3차 추경 및 2025년 예산안 관련 보고

-2024년 3차 추경 예산 현황,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박정윤 간사가 서면 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이에 정세연 위원의 동의와 이혜순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7. 기타사항 논의

• 위원 의견

▷ 주영신 센터장이 운영위원의 임기는 총2년이며, 2024년 12월로 2년의 임기가 종료됨을 안내하다. 또한 도수지 위원, 황원준 의원의 사임 표시를 전달하며, 2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해야 하므로 위원 후보로 추천해 주실 분이 있는지 요청하다.

▷ 주영신 센터장이 2025년 8월 이후 연수구가족센터가 1관, 2관의 형식으로 나뉘어 운영될 것을 안내하다. 1관은 현재 위치, 2관은 함박 마을 내 상생교류소로 2025년 8월 혹은 그 이후부터 건가와 다가로 운영될 것을 안내하다.

- 이도희 위원이 건가, 다가로 나뉘어 운영되는 곳이 인천에 여러곳 있는지 질의하다.

- 주영신 센터장이 부평 센터만 나뉘어 운영되고 모두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답하다.

- 이도희 위원장이 왜 나뉘어 운영되는지 배경 설명을 요청하다.

- 연수구청 김윤정 팀장이 인천시를 비롯, 지자체에서는 다문화와 외국인을 같은 범주에 놓고 업무를 진행하고자 센터의 사업 주무부서도 2개로 이원화 운영될 예정이며, 자치 행정과(외국인, 다문화)와 여성아동과(건가사업)로 나누어 소관하게 됨을 안내하다.

- 이도희 위원장이 타 시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다.

- 김윤정 위원장은 가까이 시흥시가 동일한 사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업무적 불편함은 잘 알고 있고, 소관 부서가 이원화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다문화와 외국인 업무가 통합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로 보여진다고 답변하다.

- 주영신센터장은 가족센터의 업무가 인천시 3개과에서 소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김윤정 팀장이 센터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인천시가 디아스포라유산과(내년 다문화사회과)와 인구가족과로 나뉘어 운영하는 것처럼, 연수구도 자치행정과, 여성아동과로 이원화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하다.

- 이도희 위원장은 현장의 실무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연수구도 고려해야 할 것 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 김윤정 위원은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음에도 조직 개편이 나뉘어 진행되었다고 답하다. 또한 ‘난민, 다문화, 외국인’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다.

- 이도희 위원장은 민과 관이 목적하는 바는 같으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김윤정 위원장은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 예정이라고 답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상생교류소가 교통, 주차 등 접근성이 취약한 것도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 김윤정 팀장은 현재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하다.

6. 폐회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이도희 위원장이 연수구가족센터 2024년 제4차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